그림·묵서에 담긴 '참나' 찾는 여정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심우도팔폭병풍 등 묵서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에 출품되는 '심우도팔폭병풍'. 동산당 혜일 대종사가 친필로 남긴 송(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우도(尋牛圖)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데 비유하여 10단계로 그린 그림이다. 이는 선종(禪宗)에 전해 내려오는 그림으로 한국에는 송나라 때 제작된 곽암본과 보명본이 모두 전해지고 있다.

달마도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심우도는 언어와 어떤 이론에도 의존하지 않고 마음의 실상을 찾아 부처가 되는 이상과 원리로 삼는 선의 종지를 그대로 담아낸다. 결국, 마음의 소를 찾는 여정이 심우도에 그려지는 것이다.

선지식들의 묵서와 선종화를 통해 참나를 찾아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법보종찰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현석 스님)은 기획전 '참나를 찾아서'를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갤러리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심우도팔폭병풍, 소정 변관식 달마도, 성철·혜암·법전 스님 등 고승대덕의 묵서 등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관람객이 참나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부 '자연과의 교감'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교감을 이뤄 참나를 찾는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한다.

제2부 '공(空)을 찾는 여정'에서는 심우도 속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은 존재의 실상임을 깨닫기 위한 수행은 참나를 찾는 여정임을 이해하고, 삶의 화두를 던져본다.

제3부 '선지식의 이정표'에서는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 온 한국 근현대 선지식들의 묵서가 자리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선지식들이 남긴 글씨가 들려주는 법음(法音)은 진정한 참나를 찾는 이들의 이정표가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전에 소개되는 불교문화유산 중에는 '심우도팔폭병풍'을 주목할 만하다. 10개의 심우도 장면 중 8폭의 병풍으로 구성되어, 삶의 화두를 던지고 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각 그림에 적힌 송(頌)은 동산당 혜일 대종사의 친필로, 화두를 찾아가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심우도에 적힌 게송이 동산 스님의 필적 진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왔으나, 심우도에 찍혀 있는 '용봉(龍峯)' 낙관과 심우도송 끝에 '무인중추유희삼매중용봉제(戊寅仲秋遊戱三昧中龍峯題)'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봉은 1939년 성철 스님의 은해사 운부암 안거증을 통해서 동산 스님의 법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은 "한민족에게 〈삼국유사〉가 차지하는 가치처럼, 동산 스님의 '심우도팔폭병풍'은 불교계의 보물"이라며 "동산 스님께서 찾으신 '소'가 성철 스님으로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참나를 찾는 이들에게 북극성 역할을 할 것"라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진우 사진전 개최

범어사 성보박물관(박물관장 정오 스님)이 금정산, 범어사를 담은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를 개최한다. 사진은 부산 역사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 문진우의 작품이며 오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범어사 성보박물관 2층에서 개막식이 진행된다. 전시는 개막 후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진우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는 지난 5월 1일 개막한 특별전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과 함께하는 기획이다. '금정산 산 그리메'가 겹쳐진 산등성이의 풍경으로 금정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면, '금정산 빛그리메'는 빛의 예술 사진에 담긴 금정의 자연을 담았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부산의 대표 사진가 문진우 작가가 담은 금정산의 순간을 범어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금정산의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 불단·고승 진영 최신 연구조사 '망라'

불교문화유산硏 · 국가유산청
2023년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사찰 불단과 고승 진영 관련 최신 연구조사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재)불교문화연구소(소장 호암 스님)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공동 추진 중인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의 2023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지역 9개 주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보물 및 시도유형문화유산 등의 불단과 장엄구 총 35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와 원형 디지털 기록화 및 안전 점검 등의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 불단 제작연도(1580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 기록을 발견했으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불단 내부에서는 목조불단과 소조대좌가 확인됐고, 외부 불단과 내부 불단 사이에서는 녹유전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불단의 내부에서는 불단을 제작한 장인 등에 대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묵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를 통해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묵서가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인천·경기, 강원 지역 11개 사찰의 불단 12점과 장엄구 16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지난 5년간의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의 사업성과를 종합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추진 중이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2023년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지역 29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승 진영 총 201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의성 대곡사 삼화상 진영' 등 고승 진영에 대한 현황 및 중요 기록자료 등과 함께 2차원(2D) 디지털 촬영을 통해 확보한 정밀 원형 사진이 담겨있으며, 보존과학 조사를 통해 도출한 향후 보수 및 보존처리의 방향성도 수록했다.

또한, '대구 유가사 도성암 응월당 증일 진영'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승 진영 11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서울·경기·강원·전북·부산 지역 19개 사찰에서 소장중인 진영 75점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진영 109점 등 총 184점에 대해 정밀 학술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신중일 기자

장좌리사지서 고려·조선 건물지 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6월 11일 현장설명회

완도 장좌리사지에서 고려~조선시대 사찰 건물지들이 확인됐다. 〈사진〉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6월 11일 완도 장좌리사지 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개최했다.

완도 장좌리사지는 중암사지라고도 불리고 있으나, 관련 문헌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중암사지 팔각부도(향토문화유산 제6호)가 일제강점기 당시 중암사지에서 보길도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어 일찍부터 사찰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돼 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와 석축, 담장 등이 중복된 상태로 확인하였으며,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등이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 중 고려시대 기와문양인 어골문과 격자문이 결합된 복합문이 확인되어 절터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절터는 석축을 축조하고 건물을 배치하는 산지가람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중심영역과 생활영역이 지형에 맞춰 구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굴조사 기간에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완도 법화사지와 더불어 완도 불교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완도 장좌리사지 시굴조사는 완도 법화사지에 이은 완도 불교유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완도의 새로운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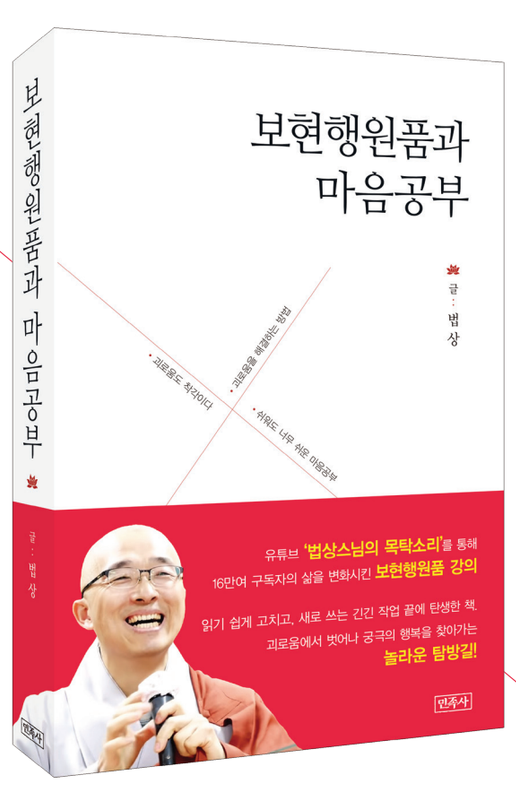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만족도 최상" 평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6월 8일 출시한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원포인트 여행(특정 테마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부합한 금번 기차여행 상품은 첫 출시임에도, 목표 인원 98%에 이르는 309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반야사, 영국사, 용화사, 갑사, 신안사, 한국문화연수원, 도리사, 직지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각 사찰은 만다라 명상, 108염주 만들기, 깻잎 유기농 쿠키 만들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불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온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사업이 드디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관광문화와 다각도로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
• 불변증을 통한 마음공부 •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